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연변선수단 1 위

5월 29일 오후,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사흘간의 치열한 각축 끝에, 모든 선수와 지도원 및 사업일군들의 공동의 노력 끝에 11개 경기 종목, 3개 공연 종목의 모든 경기 일정을 원만히 완수하고 완벽하게 결속되었다.

전 성 각 시 (주), 장백산관리위원회와 매하구시에서 온 11개 선수단의 1,100여명 선수들이 그네, 널뛰기, 진주뿔, 제기차기, 사궁, 압가, 민족건신체조, 민족식씨름, 무술, 율놀이, 하르바 등 11개 시합 (竞赛) 종목과 팽이, 널신 속도 경기, 전통활쏘기 등 3개 공연 종목을 포함한 도합 14개 경기 (比赛) 종목에 참가하여 금메달 70개, 은메달 70개와 동메달 81개 등 도합 221개 메달을 놓고 사흘간의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그중 연변선수단이 24금, 16은, 12동, 총메달수 52개로 대망의 금메달수와 총메달수 1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주최측 백산시 선수단이 11금, 15은, 14동, 총메달수 40개로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장춘시선수단이 9금, 12은, 10동, 총메달수 31개로 3위를 차지했다.

5월 29일,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민족식씨름경기가 마지막날에 들어선 가운데 이족식씨름 (격)과 조선족식씨름 두가지 경기가 백산시 훈강구에 위치한 광백국제스포츠허에서 개최되었다. 사흘간의 치

열한 각축을 거쳐 전 성 각지의 민족식씨름 선수들은 다채로운 경기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다. 주최지 백산시선수단이 이족, 만족, 몽골족, 조선족 씨름 등 4가지 씨름경기에서 3금, 5은, 4동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백산발표' 위챗 공식계정이 전했다.

마지막 경기일, 백산시소년아동체육학교에서 진행된 사궁 단체전에서는 연변선수단이 665환의 절대적인 우세로 혼합단체전 1위를 차지하고 장춘시와 길림시 선수단이 각각 599환과 596환의 총성적으로 2, 3위를 따냈다.

29일 오전, 경기 일정이 막바지에 들어감에 따라 장백산직업기술학원 체육장에서 펼쳐진 압가 85키로그램급 결승전에서 선수들은 힘과 기교의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최종 백산시 선수단 최경국 (崔京国), 사평시선수단 사경륜 (谢经纶), 장춘시선수단 요홍창 (姚鸿昶)이 각각 1, 2, 3위를 따냈다.

29일, 경기성과 관상성을 모두 갖춘 널신 속도 경기 남자와 여자 2×100미터 계주 및 남녀혼합 4×100미터 계주가 장백산직업기술학원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선수단과 매하구시선수단이 각각 남자와 여자 2×100미터 널신 속도 경기 계주 1위를 차지하고 매하구시선수단이 남녀혼합 4×100미터 널신 속도 경기 계주 1위를 차지했다.

하르바경기 현장에서 송원시선수단의 왕철군 (王铁军), 매하구시선수단의 류충 (刘聪), 송원시선수단의 장경국 (张庆国)이 각각 남자 개인 30미터 종목 1, 2, 3위를 차지했다. 송원시선수단의 장화 (张华)와 고양 (高杨)이 각각 여자 개인 30미터 종목 1, 2위를 차지하고 길림시선수단의 류정 (刘婧)이 3위를 차지했다.

29일 오전, 민족무술기구류 남녀조 7개 경기 종목 1위가 탄생함에 따라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민족무술경기가 백산시문화체육예술센터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료원시선수단 류항욱 (刘航旭)이 남자전통기구 A류 1위를, 장춘시선수단 양한준 (杨瀚竣)이 남자전통기구 B류 1위를, 백산시선수단의 류운경 (刘耘庚)이 남자전통기구 C조 1위를 차지했다. 장춘시선수단 리훈엽 (李昕烨)이 여자전통기구 A류 1위를, 장춘시선수단 류신흔 (刘晨欣)이 여자전통기구 B류 1위를, 길림시선수단 서충 (徐聪)이 여자전통기구 C조 1위를 차지했다. 남자 대항경기에서 사평시선수단이 1위를 차지했다.

5월 29일 오전,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제기차기 종목이 백산시문화체육예술센터에서 결승단계에 들어갔다. 치열한 각축 끝에 남자부에서는 연변팀이 1위, 장춘팀이 2위, 백산팀이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에서는 길림팀이 1위, 장춘팀이 2위, 백산팀이 3위를 차지했다.

전통활쏘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여자 개인과 남자 개인 결승전이 29일 백산시체육장에서 열렸다. 연변선수단 김화순 (金华顺)이 여자 개인 1위를 차지하고 길림시선수단 곽홍찬 (霍兴璨)과 백산시선수단 장숙휘 (张淑辉)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길림시선수단 곽가녕 (郭家宁), 회의동 (回毅冬), 류향군 (刘向军)이 각각 남자 개인 1, 2, 3위를 차지했다.

29일 오전, 백산시 훈강구소방대대에서 있는 민족건신체조 결승전에서는 장춘시, 연변, 백산시 선수단이 민족건신체조 규정방법 경기 1, 2, 3위를 차지하고 자유선택방법 경기에서는 연변, 장춘시, 송원시 선수단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29일 오후, 장백산직업기술학원 무용교실에서 있는 율놀이 결승전에서는 길림시, 사평시, 료원시 선수단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같은 날 오후, 백산시외국어학교 체육관에서 있는 진주뿔 결승전에서는 길림시, 송원시, 연변 선수단이 각각 남자부 경기 1, 2, 3위를 차지하고 여자부 경기에서는 사평시, 길림시, 연변 선수단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 유경봉 오건 기자



吉林省第八届少数民族传统体育运动会					
奖牌榜					
名次	代表队	金	银	铜	合计
1	延边	24	16	12	52
2	白山	11	15	14	40
3	长春	9	12	10	31
4	辽源	8	2	9	19
5	吉林	7	11	9	27
6	梅河口	6	4	10	20
7	松原	3	3	3	9
8	四平	2	6	8	16
9	通化		1	4	5
10	白城			2	2
11	长白山				0
合计		70	70	81	221



긴장하고 격렬한 활쏘기

29일,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경기 종목인 하르바 (哈日靶)와 전통활쏘기 경기가 백산시에서 결속되었다.

전통활쏘기는 이번 대회의 공연 종목으로서 선수들이 화려한 전통민족의상을 입고 경기를 펼쳤다. 결승전 현장에서 선수들은 두 발을 벌리고 서서는 왼팔로 활을 고정한 채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녁의 중심을 겨냥해 오른손으로 화살을 당겼다. 다른 경기의 열렬한 분위기에 비해 하르바경기는 평온했다. 경기장에서 남자선수들은 활을 당기고 쏘는

동작의 일관성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잘 보여줬다.

길림팀 곽가녕은 이미 여러해 동안 전통활쏘기를 연습해왔고 이 운동은 그의 신체와 의지를 단련시켰다. 그는 “한 동작을 보통 오래 연습해야 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만 열정 하나로 견딜 수 있었다. 전통활쏘기는 긴장하고 격렬한 운동이다. 매번 경기에 참가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고 함께 훈련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유경봉 오건 기자



제기차기, 선수들 연령층 점차 젊어지고 있다

5월 29일의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제기차기 종목 남녀 결승전은 치열함으로 흥미진진했다.

선수들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네트 앞에서 힘차게 내리찍거나 때로는 가볍게 내리치기도 하면서 우세를 쟁취하기 위해 저마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다. 점수가 번갈아 뒤바뀌면서 긴박하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이어지고 선수들의 멋진 경기는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제기차기는 남녀 각각 8개 팀이 참가했는데 선수들 수준이 지난 대회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남녀 상위 4개 팀의 수준이 비슷해 경기가 매우 치열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이 운동에 참가

하면서 선수들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우사태 재판장이 말했다.

제기차기는 우리나라 민간의 제기차기 활동을 기초로 하여 발전된 전통적인 민족체육종목이다. 민간제기차기는 한조 때에 지원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미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기차기운동은 허리와 다리 및 관절의 유연성을 단련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남녀로소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장소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간단하여 여러 민족들이 일상적으로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1995년에 열린 제 5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에서 처음으로 제기차기를 경기 종목으로 지정하였다. / 유경봉 오건 기자



민족건신체조, 새로운 활력 보여줘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민족건신체조 경기에서 참가 선수들은 민족특색의 운동복장을 차려입고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단아하고 부드러운 동작과 자기만의 개성이 넘치는 춤으로 관중들에게 감화력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민족건신체조의 공연은 민족성, 체육성, 관상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전통문화의 내용과 정화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이번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민족건신체조 공연은 우리 성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민족복장, 민족풍속에 초점을 맞추고 예술공연의 형식을 통해 각 민족만의 풍토와 문화 매력을 충분히 전시했다.

민족건신체조는 2014년 제 10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에서 정식 경기 종목으로 분류됐다. “민족건신체조는 민족무용과 건강

체조의 동작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동시에 각 민족의 무용을 참고하고 결부시켜 민족문화와 신체단련을 하나로 융합시켰다.”고 경기 심판장 류주가 말했다.

이번 민족건신체조 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각 대표팀의 공연복장, 대형 변화 등 면에서도 많이 다듬어졌으며 창의성 면에서도 풍격과 운치가 더해졌다.

장춘팀의 한 선수는 “처음으로 이런 대형 경기에 참가해 긴장하고 흥분했다. 각 팀의 공연을 통해 나는 이 종목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느꼈고 이 종목을 더욱 좋아하게 됐다. 차기 경기에도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작의 편성에 다민족 요소를 융합하도록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이는 민족건신체조의 진일보 보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화문화의 인정도를 증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류주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종목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전개할 수 있으며 부동한 연령대에 따라 목적성 있는 동작을 편성할 수 있고 남녀로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반드시 여러 민족 군중들이 좋아하는 전민건강 종목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했다.

이번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의 추동하에 길림성 민족건신체조의 보급면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동작의 보급과 사회체육지도원에 대한 훈련 그리고 길림성 소수민족전통체육종목기지에서의 보급 등 다양한 형식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군중들이 민족건신체조를 리해하고 접촉하며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대회 활동을 개최하여 군중들이 참여하게 하면서 민족건신체조의 보급과 제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류주는 말했다. / 유경봉 오건 기자



그네 우승자 박려정, 전국대회 우승의 큰 꿈 향해 비상

5월 27일, 백산시 장백산직업기술학원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그네경기는 개인 55키로그램이하 체급과 개인 55키로그램이상 체급으로 나누어 진행, 전 성에서 온 5개 팀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각축을 펼쳤다.

그네 종목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여자 선수만 출전한 종목으로서 선수들의 강한 단력과 체력을 필요로 하며 그네 우에서의 당당한 모습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보여준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팀의 박려정, 사평팀의 우력암, 길림팀의 강의진이 55키로그램이하 체급 개인 종목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

고 연변팀의 조역맹과 심비, 사평팀의 류우락이 각각 55키로그램이상 체급의 개인 종목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그네 종목 55키로그램이하 체급 개인 종목 우승을 따낸 박려정선수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연변대학 체육학원 연구생인데 배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네를 접하게 되었고 양옥단 감독님을 따라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금상은 나에게 아주 큰 동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 12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

육운동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따내겠습니다.”

지난 제 11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그네 높이뛰기 개인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적 있는 박려정의 활약에 대해 양옥단 감독은 “박려정은 심리자질이 뛰어나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히 싸우는 경기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려정선수가 성급과 국가급 대회에 출전하는 기회는 아주 드물습니다. 이번 경기를 새로운 기점으로 최선을 다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려정이 최고라고 믿습니다.”라고 신심 가득히 말했다. / 유경봉 오건 기자, 최창남

